

중국, 운남성 화훼산업 개황

김윤식*

과거 중국의 화훼산업은 광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운남성과 복건성이 새로운 화훼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운남성은 화훼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지 1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적인 측면에서 화훼재배에 유리하여 화훼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운남성에서는 우리나라의 심비디움 재배 농가도 다수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1. 운남성(云南省) 화훼산업의 생산 현황

과거 중국 화훼산업의 중심지는 광둥성(廣東省)이었으나, 최근에는 절화를 중심으로 운남성(云南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운남성의 화훼산업의 역사는 다른 지역에 비해 길지 않다. 과거 운남성의 주요 농산물은 담배 및 껌이었다. 운남성의 담배 및 껌 생산량은 중국 전체 생산량의 26%로 차지하여 중국내 최대 생산지였다. 하지만 담배산업이 사양화되면서 화훼산업이 빠르게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과 1996년 사이에 운남성의 담배산업계는 화훼산업에 1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다. 운남성(云南省) 정부도 1995년부터 적극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운남성의 화훼산업이 발달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기후를 들 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yunshik@krei.re.kr 02-3299-4383.

있다. 운남성의 날씨는 아열대이지만 고도가 높아 1년 내내 우리나라의 봄과 가을과 같이 온화하다. 연평균기온 15℃로 겨울인 1월의 평균기온이 9.2℃이고 여름인 7월의 평균기온이 19.9℃ 정도이다. 따라서 꽃 재배에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운남성에 화훼산업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었다. 한 농민이 상하이에 갔다가 화훼산업의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처음 운남성에 도입하였다. 이후 조금씩 화훼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성장하였다. 1991년 16ha였던 재배면적이 1999년에 1,729ha, 2004년에는 10,600ha, 2006년에는 2만 ha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운남성 중에서는 곤명시(昆明市)의 재배면적이 가장 많다. 농가수도 21,400호(2004년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관련 기업도 39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생산량도 1994년에 2억 1천만 송이에서 1999년에 11억 2백만 송이, 2002년에 23억 송이, 2006년에 42억 송이로 증가하였다. 생산액 규모도 1999년에 4억 7천만 위안에서 2002년 34억 위안, 2006년에 72억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화훼 수출액은 6500만 달러로 2005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였다. 운남성의 화훼산업은 절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운남성의 절화 시장 규모는 중국 전체의 50%에 해당되는 4억 1,500만 달러에 달한다.

운남성에서 생산되는 화훼 중에서 90% 이상은 절화 형태로 유통된다. 화훼류 중에서 카네이션이 전체 생산량의 35%, 장미가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숙근 안개초, 백합, 도라지꽃 등도 생산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절화 중에서는 장미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서양란 중에서는 호접란과 심비디움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운남성의 화훼산업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품종은 수입산이다. 백합의 경우, 연간 필요한 백합 종구는 4,000만 구 정도인데, 이 중 2분의 1은 수입되고 나머지는 운남성 자체 생산으로 공급한다. 운남성 농업과학원 산하 윈예연구소

도 백합의 종구를 일부 공급하는데 연간 백합 종구의 공급량은 약 300만 구 정도로 전체 종구 수요량의 7.5% 정도를 차지한다. 윈예연구소가 공급하는 백합 종구의 가격은 수입가격의 3분의 2 또는 4분의 3 수준으로 2007년의 경우 수입 백합 종구의 가격은 3元 정도였던 반면, 윈예연구소가 공급하는 가격은 2.3-2.5元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운남성에서 생산되는 화훼는 대부분 두남(斗南)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일부가 인근에 있는 경매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두남시장은 중국 최대의 꽃 도매시장이다. 두남시장에는 약 327개의 등록회사가 있고, 하루 300만 송이 정도가 거래되지만 피크시즌에는 400만 송이 이상이 거래되기도 한다. 거래되는 절화류는 장미, 카네이션, 백합, 거베라, 안개꽃 등이지만 장미의 비중이 80-85% 수준으로 가장 높다.

운남성은 화훼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2003년에 두남시장 옆에 1억 2,500만 위안을 투자, 쿤밍국제화훼경매시장(KIFA: Kunming International Flora Auction Trading Co.)을 설립하였다. 운남성 정부, 곤명시, 상해의 회사 등이 공동 투자하여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며, 운영권은 상해의 회사가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의 화훼경매시장인 네델란드 알스미어 경매시장(VBA: Aalsmeer Flower Auction)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문을 받았다.

KIFA가 처리하는 물량은 두남시장 거래량의 10-15% 정도로 아직까지는 경매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KIFA는 장미에 특화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현재 두남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미의 50-60%는 KIFA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KIFA를 통해 거래되는 물량이 40-50만 송이 정도 되는데, 거래되는 물량의 80% 정도는 중국 내수용으로 판매되고 약 20% 정도가 수출된다.

가격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3월-추석까지는 낮은 편이고 추석 이후부터 3월 전까지 가격이 높은 형태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가격 추세는 2002년 이후 상승 추세이다. 예를 들어, 2006년 장미 한 송이에 0.2元했지만 올해는 0.4元에 팔리고 있다.

과거 운남성의 담배 재배 농가들은 1무당 1,000위안, 채소 재배농가들이 1무당 4,000위안의 수입을 올렸었던 데 반해, 화훼농가는 1무당 15,000위안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1무당 30,000위안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농가도 있다. 이러한 고소득에 힘입어 다른 작물을 재배하던 많은 농가들이 화훼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2. 운남성(雲南省) 화훼산업의 수출 현황

중국 내에서 화훼류 수출이 많은 지역은 과거 광둥성과 복건성이었으나, 최근에는 운남성과 절강성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광둥성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6년의 화훼류 수출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반면, 운남성과 복건성은 2005년에 비해 2006년에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복건성은 광둥성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운남성은 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꽃 재배에 적합한 기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운남성의 4대 화훼류 수출 품목은 절화, 절지와 절엽, 꺾꽂이와 종묘, 종구 등으로 2005년에 비해 2006년에는 이들 품목의 수출액이 각각 83.8%, 33.6%, 161.9%, 13.9%로 증가하였다. 전체 생산량의 80% 정도는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10-15% 정도만이 일본, 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한국 등으로 수출된다. 이 중 절화의 수출액은 전체 화훼류 수출액의 86.4%를 차지한다. 주로 홍콩,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에 수출되며 2006년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액은 각각 336만 달러, 298만 달러, 192만 달러, 137만 달러였다. 이들 4개국으로 수출되는 절화류는 운남성 전체의 절화 수출의 79.1%를 차지한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5월에 카네이션을 중심으로 소량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운남성의 절화 품질은 국제시장의 고급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표 1 중국 화훼의 주요 수출 국가, 2005~06년

단위: 만 달러, %

국가별(지역별)	2005년	2006년	증감률
수출총액	7318.7	10,003.9	36.7
일본	2,011.4	3,383.1	68.2
네덜란드	1,522.5	1,797.8	18.1
미국	859.7	964.2	12.2
한국	750.7	937.3	24.9
홍콩	677.7	827.8	22.1
싱가포르	185.3	280.0	51.1
태국	78.8	163.6	107.5
이탈리아	169.0	138.9	-17.8
말레이시아	92.6	136.7	47.7
호주	76.5	134.5	75.7

자료: 中國商務部. 2006.12. 「中國農產品出口月度統計報告(花卉)」. 中國商務部對外貿易司.

표 2 중국의 주요 성(省)별 수출 현황, 2005~06년

단위: 만 달러, %

지역	2005년	2006년	증감률
상해시	640.0	873.7	36.5
절강성	628.8	1,716.2	172.9
복건성	1,073.3	1,370.9	27.7
광둥성	2,609.3	2,381.6	-8.7
운남성	711.3	1,353.0	90.2

자료: 中國商務部. 2006. 「中國農產品出口月度統計報告(花卉)」. 中國商務部對外貿易司.

운송은 주로 항공을 이용하며, 홍콩으로의 수출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트럭 운송을 활용한다.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수출용 종이 상자가 있어 이 상자를 이용한다. 수출시 운송비용은 장미의 경우는 주당 30센트(280-300원) 수준이고, 국화는 일본으로 수출 시 항공비용이 kg당 10위안 (1,200원) 정도이다. 생산지부터 공항까지의 운송비용은 주당 0.1-0.2위안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3. 운남성에서 화훼산업이 발달한 원인

운남성 화훼산업의 경쟁력은 연중 재배가 가능한 온화한 날씨, 저가의 지가 및 노동력 등을 기반으로 한 가격경쟁력에 있다. 운남성은 연중 기후가 온난하여 화훼 재배의 최적지 중의 하나이다. 또한 임대료와 임금이 연안지역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당수의 농업노동력이 도시지역으로 이탈하여 농촌지역에서도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운남성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 임금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둘째는 성(省)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또한 운남성의 화훼산업이 발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과거 운남성의 주요 산업은 담배산업이었다. 연간 80만톤의 담배가 생산되었고, 궤련은 3,800억 개피 이상이 생산되었다. 230만 이상의 농가들이 담배산업에 종사하였고 성(省) 정부의 조세 수입의 70% 이상이 담배산업으로부터의 수입이었다. 또한 지역의 경제도 담배산업에 근거하여 과거 20년간 연 10%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담배산업을 통한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운남성 정부는 운남성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996년에 100억 위안(12억 1천만 달러) 투자 계획을 세웠다. 절화는 18개의 전략상품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1999년에는 세계 꽃 박람회를 곤명에서 개최하여 화훼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에 운남성 정부는 ‘화훼산업을 수출형산업으로 발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화훼류 수출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셋째는 외부의 지원 덕분에 운남성의 화훼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운남성은 개도국 낙후지역의 경제개발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제교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er)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ITC는 기술적인 자문을 해주었다. 또한 스위스 정부와 네델란드 알스미어 경매시장을 연결하여 운남

성이 스위스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도록 도와주었고, 알스미어 경매 시장으로부터는 경매제도 도입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도와주었다.

4. 운남성의 심비디움 시장 현황

최근 운남성에서 절화 외에도 심비디움(Cymbidium)과 호접란(胡蝶蘭) 등의 서양란 재배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심비디움의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운남성의 곤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농가도 심비디움 재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중국 전체 심비디움 생산량의 상당량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계 심비디움 농장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이곳에 진출하였다.

심비디움은 주로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전체 소비량의 80% 정도가 춘절에 소비된다. 연간 중국에서 소비되는 심비디움의 양은 약 100만 분 정도인데, 이 중 약 60만 분은 중국 내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물량은 한국에서 주로 수입된다.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60만 분의 대부분은 운남성에서 재배된다. 운남성에 생산되는 심비디움의 상당량은 한국계 농장에서 출하된다.

현재 운남성에서 심비디움을 재배하는 한국계 농장은 아홉 곳이다. 생산규모가 비교적 큰 곳은 금호화훼, 화중원예, 세미화훼, 소심난원, 창수난원, 금난원 등이다. 이 중 일부는 조직배양실을 갖춘 곳도 있다. 최근 대만과 중국의 농가들이 심비디움 재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재배기술의 차이 때문에 한국계 농장에서 생산된 심비디움보다 저가에 팔리고 있다. 하지만 향후 몇 년 안에 한국계 농장들의 기술을 따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운남성 화훼산업의 문제점

운남성의 화훼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중국 농가들이 외국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채 꽃 재배를 하고 있다. 현재 운남성에 재배되는 절화류의 대부분은 네델란드 등의 다른 국가에서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등록된 품종들이다. 따라서 이들 품종을 재배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려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지만 중국의 농가들은 이들 품종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때문에 최근에 개발된 가지 없는 장미 품종의 중국으로의 이전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둘째, 중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운남성의 절화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 생산된 꽃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선진국 수준으로 품질이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품질 품종은 로열티 문제 때문에 중국으로 품종 이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도 하다.

셋째, 운남성은 중국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경쟁 지역인 절강성이나 복건성 및 광둥성에 비해 운송이 불편하다. 중국 최대의 화훼 소비지인 광둥성까지 트럭을 이용하여 육상 운송을 해야 하고, 외국으로 수출을 할 경우에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나 항공편수이나 시설면에서 쿤밍 공항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쿤밍 외곽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 중이다.

넷째, 정부의 과도한 지원도 운남성의 화훼산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외국의 경쟁 국가들은 중국 정부가 운영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교역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WTO 등에 제소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운남성에서는 절화 수송에 이용되는 냉장차가 무료로 제공되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데, 이는 WTO 규정에서 감축대상인 수출보조에 해당된다.

참고자료

현지출장 수집자료(2007년 6월 19~22일)